

# 업계 최초 전기차로 배송... CJ대한통운, 必환경시대 선도

2030년까지 전기차 3만대 전환  
전기화물차 충전소 사업도 진출  
100km 주행시 연 170만원 절감

물류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친환경 운송시대를 열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던 기존 택배 화물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기로 하면서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최초로 배송 현장에 1톤 전기화물차 투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3만여대의 차량을 2030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는 일부 업체에서 개조전기화물차를 사용해 시범적으로 운행한 적은 있었지만 상용화는 처음이다.

전기화물차를 충전하는 EV충전소도 설치해 관련사업에도 진출한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이 택배기사에게 전기화물차를 인도하는 차량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지난 17일 경기 군포에 위치한 택배서브에서 '전기화물차 도입 및 EV충전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근희 CJ대한통

운 대표이사 부회장, 김상대 기자자동차 전무,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회장과 CJ대한통운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이 전기화물차를 직접 시승하고 택배기사에게 인도를 했다. 또한 EV충전기에 차량을 충전하는 시연행사도 가졌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기화물차는 한번 충전에 180km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충전으로 한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된다. 차고지인 군포에서 배송지역인 안양까지 하루평균 50km를 주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해 택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루 100km 주행시 경유 대비 연간 17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전기화물차를 경기 군포와 울산에 두 대씩 총 4대를 택배배송에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V충전소 사업 진출을 위해 전기화물차가 운행되는 경기도 군포와 울산 택배서브에 EV충전소 설치도 끝났다. 향후 전기화물차가 도입되는 사업장 위주로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EV충전기는 군포에는 급속충전기 1대, 울산에는 완속충전기 2대가 설치됐다. 외부 차량도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사용자는 멤버십카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은 "CJ대한통운 창립 90주년을 맞는 올해를 원년으로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교체하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필(必)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술보증기금은 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손잡고 미래 최고기술책임자(CTO) 육성을 위한 '대학 기술창업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기보, 창업교육협의회와 미래 CTO 양성

창업 저변 확대 위한 인프라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손잡고 미래 최고기술책임자(CTO) 육성을 위한 '대학 기술창업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학 기술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업가 정신과 실무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가 육성, 창업지원 사업 및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사내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기술창업교육 전문강사단을 구성해 대학의 창업강좌에서 재능기부로 창업전문강의를 실시하고, 대학의 강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협의회는 참여대학을 모집하고 대학교수와 기보 강사로 구성된 기술창업교육과정 연구TF팀을 운영한다.(왼쪽 6번째부터) 이동희 한국창업교육협의회 회장,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우수성과 창출 '올해의 중진공인' 선정

중진공,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  
사회적가치 실현·일자리 창출 등  
'국내외 플랫폼간 연계사업' 최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임직원 가운데 올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진공인' 3명을 선발했다.

중진공은 지난 16일 오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올해의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업무성과가 높은 직원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가치 실현,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경영성과 등 4개 분야에서 총 156개 과제를 접수받았다. 내부 평가를 거쳐 8개 과제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최종 후보 8개 과제에 대한 전 직원 온라인 사전평가, 경진대회 당일 KOSME 심사단 평가(50인의 내·외부 평가단,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모바일 평가 결과)를 합산해 이튿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최종 3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국내 인기 유망중소기업 상품을 세계 각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에 즉시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1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열린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외 플랫폼간 연계 사업'(온라인수출처 조승민 팀장)이 뽑혔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수출 패스트 트랙(Fast-Track)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것이 높은 성과로 인정 받았다.

우수상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기술(RPA)을 활용한 중진공의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혁신'(디지털혁신실 김윤승 부장), 장려상에는 '대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사례'(대구지역본부 천병우 본부장) 과제가 각각 선정

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직원에게는 훈격에 따라 중기부 장관 표창, 인사가점, 특별휴가 등 혜택이 부여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비대면 정책자금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맞춤형 수출지원 등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사업을 혁신한 과제들이 발굴되는 등 내실있는 경진대회가 치러졌다"면서 "전례없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정책자금 집행 등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중진공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겨울 맞이 전기레인지 프로모션

올해까지 렌탈료 매달 할인 혜택 등

코웨이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기레인지 신규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 렌탈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찬바람과 미세먼지로 창문을 닫기 시작하는 겨울철을 맞이해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환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코웨이 전기레인지의 혁신 기술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인덕션 전기레인지(CIR-302)'와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CHR-03)'다. 연말까지 해당 제품 신규 렌탈 시, 매월 최대 3000원의 렌탈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웨이 인덕션 전기레인지.

특히 이번 행사는 코웨이 제품을 2대 이상 렌탈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합요금제와 중복 적용된다. 기존 고객이 추가로 전기레인지를 렌탈하거나, 신규 고객이 전기레인지를 비롯해 2대 이상 동시에 렌탈하면 매월 렌탈료를 최대 8% 추가 할인해준다.

/김승호 기자

## 공영쇼핑, 생필품 물가안정 도모 '필마트'

생필품 좋은 가격·구성으로 판매  
게릴라 형태 타임특가 코너 마련

공영쇼핑이 생활필수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영쇼핑은 19일 15시30분, 순화장지 30m 2팩과 프리미엄 물티슈 20팩을 각각 1만6900원에 판매하는 '필요한 마트, 필마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좋은 가격과 좋은 구성에 판매해 물가안정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생필품 전용 프로그램인만큼 휴지, 치약, 세제, 수건 등 가정에서 매일 사용하는 상품 위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필요한 마트, 필마트'는 동일상품을 모바일로 2·3·4개 이상 구매하면 각각 할인율이 10%씩 늘어나 4개 이상 구매

시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문 2건당 상품 2개 이상 구매 시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2개 이상 주문한 상품은 별도의 배송지를 설정하면 무료로 따로 배송도 가능하다.

매 방송마다 2종류의 생필품이 소개되며 방송 중 게릴라 형태의 타임특가 코너를 마련해 방송 중에만 특가에 구입할 수 있는 '특템'의 찬스도 제공한다. 또한, 게스트로 개그우먼 전영미가 출연해 전매특허 성대모사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기를 활용해 재미있고 유쾌한 방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